

생태사회와 불교

순환적 사회와 불교의 윤회

# 직선적 세계관이 환경문제 초래

不死는 존재하지 않는데...

지리산에 올라가 발아래 펼쳐진 끝간데 없이 연이은 산봉우리들과 짙푸른 자란 나무와 거대한 계곡과 숲을 보면서 크게 감동한다. 그 작은 씨앗, 묘목이 자라서 어떻게 저토록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이 만들어졌을까. 정말 경이롭기까지 하다. 사람도 밥을 먹어야 크는데 나무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숲은 도대체 무엇을 먹으면서 자랄까?

당연하지만 모든 생명에게 고루 비추는 따뜻한 햇살과 구름이 쏟아내는 비, 흙속의 많은 영양분과 바람, 벌레, 새들과 별들이 합쳐 만든 우주적 하모니의 결과다. 자연은 서로 서로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그물(Net)이다. 공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태고적부터 이 나무의 아버지나무, 할아버지나무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나무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선조들의 수많은 죽은 덕분이다.

그렇다. 그 죽음이 다시 땅속(地)에 분해돼 영양소로, 물속으로(水), 뜨거운 기운(火)과 에너지로 그리고 가스(風)로 변화해 다른 생명들을 먹이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4대(地)로 화(化)해 흩어진 물질들이 다시 어떠한 식물의 인연으로 모여 씨앗으로 만나고, 정자와 난자로 만나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된다. 이것이 윤회이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다.

이 식물과 동물은 다시 성장하면서 다시 땅과 물과 화기와 에너지를 섭취하고 활용한다. 그래서 결국 다시 죽음이 된다. 잘 죽는 것이 결국 잘 살리는 것, 그래서 잘 썩는 것이 곧 잘 살리는 것이다. 죽음이 곧 살림이 되는 것이며, 생(生)이 곧 사(死)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삶과 죽음은 하나인 것이다. 생즉사(生即死) 사즉생(死即生)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들이 이리할진대 유독 사람만이 죽지 않으려고 한다. 영원히 살려고 한다.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뿐 아니라 자신만이 만든 물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 비닐 플라스틱, 핵폭탄, 원자력발전소 등등. 이것이 자연 정화능력을 넘지 않았던 작은 양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인계점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사단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고?

사람들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한다. 그 '위'는 계곡상류이고 또한 깊은 산속의 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산속 계곡에서 흘러내려가 내를 이루고 강에 이르러 바다로 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흐르는 물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강원도 제132호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영월 보덕사 해우소(사진 왼쪽)와 선암사 뒷간(사진 오른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 해우소들이다. 사찰 화장실은 해우소(解憂所)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는 정량(淨廊), 청축, 뒷간이라고 부른다. 순환적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강원도 제132호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영월 보덕사 해우소(사진 왼쪽)와 선암사 뒷간(사진 오른쪽).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집 해우소들이다. 사찰 화장실은 해우소(解憂所)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는 정량(淨廊), 청축, 뒷간이라고 부른다. 순환적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정말 맞는 말일까? 실제 보이는 세계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한다면 산에는 물로 가득 차 있는 물탱크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런 물탱크가 있을까?

그런 물탱크는 없지만, 물탱크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곧 나무와 풀이 물을 머금고, 흙이 물을 흡수해 지하수에 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수로 흘러가 밖으로 나와 샘물이 된다.

그 물이 계곡 물로 흘러가고 낮은 계곡이나 평지의 지하수가 흘러 모여져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산의 물이나 계곡의 물은 결국 비가 내려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구름이다. 결국 구름이 있어야 비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곡의 물을 만든다. 그래서 더 깊어 사색을 하면 그 시원(始原)이 구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끝일까? 물의 시작은 구름이고 종착역은 바다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구름은 결국 물의 증발과 증산작용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물방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잘 썩는 것이 곧 잘 살리는 것  
자연은 반복하며 윤회한다  
절 해우소서 '변'은 퇴비 역할  
생태계의 순환은 본래 이치

있어야 구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물방울은 어디서 오는가? 계곡이나 강물, 바닷물이 증발해서 혹은 땅의 수분 등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양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숲이나 산림은 어쩌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물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오를 전후해 먼 산을 바라보면 뿌연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나무들이 물을 빨아들여 나뭇잎으로 증산작용으로 안개를 만들기 때문이다. 바다와 강, 계곡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비로 내리고 계곡 물이 되고 장강을 이뤄 바다가 되고 다시 증발해 구름이 되고... 등을 반복하며 윤회한다. 돌고 도는 것, 이것이 자연이다.

수세식 변소와 폐세식 해우소

오늘날 수세식변소에서 '변은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좋다고 생각해 벨트를 눌러 물을 내리면 직선적으로 흘러가버렸다. 나와 관계없는 멀고 먼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폐세식 해우소에서 변은 더럽고 버려야 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냄새야 나지만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퇴비라고 생각해 잘 모아서 밭에 뿌리면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도 화(化)하여 다시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먹어 다시 변을 만들어 내보낸다.

인간의 생활은 이러한 순환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보면 더러운 것, 쓰레기같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돼 살려주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나와 관계없이 멀고 먼 곳으로 갔다 생각해 버린 수세식변소의 변은 결국 강물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켜 내가 먹는 음식, 생선등에 축적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직선적 세계관과 그에 기반해 만들어진 모든 생활문화에서 윤회와 순환적세계관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환경, 생명생태주의자들의 인식이다.

보이는 게 전부 아니다

모든 존재는 '연관되어 변화한다'는 이 세계는 제석천의 그물망(인드라의 그물망)처럼 구슬 하나하나에 전체가 비취어져, 하나속에 전체가 전체속에 하나가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인 것이다. 이 연가법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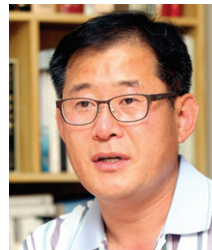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순환과 윤회의 세계일 수 밖에 없다. 위의 설명은 생물의 윤회는 생태학의 기본이자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의미다. 더욱이 윤회의 세계관에서 볼때도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역시 보이는 것만이 세계의 전부라 생각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 인식할 뿐 물이 위로 올라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과 같은 환경 문제는 바로 "보이는 세계만이 실제의 존재"라는 생각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금은 산에서 취사 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등산 가서 자신이 있는 곳 뒷 쪽 물을 퍼 밥 짓고, 아랫쪽의 물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렇지만 조금 밑으로 걸어내려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설거지 한 물로 밥

짓고, 자신도 그 밑에서 똑같이 설거지를 한다.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위는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해 밥 짓고, 그 밑에서는 더러운 물이라 여겨 오줌을 누거나 설거지를 하기도 한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를 중심으로 위 아래를 구분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보이는 세계만이 존재의 전부라고 한다면 자신이 있는 위치의 위(상류)에서 물은 시작되고 밑(하류)으로 직선적으로 흘러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세계는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가 구분할 수 없다. 무시무종(無始無終)인 것이다.

생태계가 순환(循環), 윤회(輪廻)하는 것이 자연 본래의 이치이다. 환경문제는 서로 연관 맺으며 순환하는 이치를 무시하고, 직선적인 시간관, 직선적인 발전, 직선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온 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이다.



유정길 (에코포럼 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 (사)대한불교 조동종 연수교육 안내

대한불교 조동종은 포교방법과 전법이 뚜렷한 선종으로서 목조선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종단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찰에서는 포교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 15차 연수교육 및 금강계단(수계 및 구족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전 종도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종도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2556년 10월 17일 (음 9월 3일) ~ 10월 19일 (음 9월 5일) (2박 3일)
- 장 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승리 392-10 다보사 수련원 043)833-7789
- 대 상 : 전 종도 및 불자
- 준비물 : 종단가사, 장삼, 바루, 세면도구
- 집결시간 : 종단가사, 장삼, 바루, 세면도구
- 문의 :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 02)2091-0408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동종

서울 노원구 상계 4동 산 154 수락산 도선사(내)  
Tel : 02)2091-0408 Fax : 02)952-0408

홈페이지 : 조동종.kr